

“‘신의 악단’ 거짓말 같은 실화…북한군 상상하며 연기”

2AM 멤버 겸 가수 정진운 “몽골의 극한 추위 몰입에 도움”

대북 제재로 외화벌이 수단이 끊어진 북한이 국제 원조를 받기 위해 ‘가짜 찬양단’을 만든다.

당은 혹시 모를 단원들의 ‘사상 오염’을 감시하고자 보위부 장교를 지휘자로 임명하고, 따로 감찰조 간부도 파견한다. 겉모습만 꾸며낸 찬양단이지만 단원들은 서슬 퍼런 분위기에서도 음악에 대한 열정을 끼트리지 않는다.

오는 31일 개봉하는 김형협 감독의 ‘신의 악단’은 북한의 가짜 찬양단 단원 12명이 하모니를 이루면서 각자 내면이 성장해가는 이야기다.

2AM 멤버 겸 가수인 정진운이 찬양단을 감시하는 보위부 대위 김태성 역을, 배우 박시후가 찬양단 지휘자인 보위부 소좌 박교순 역을 맡았다.

최근 만난 정진운은 “그냥 북한 사람 이어도 연기하기 어려웠을 텐데, 북한 군인이라서 특히 어려웠다”고 말했다.

그는 “옆에서 사람이 갑자기 죽임을 당할 수 있다는 무조건적인 공포를 실제로는 느껴본 적이 없어서 상상하며 그려내는 게 쉽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정진운은 실제 군인 출신 북한이탈주



‘신의 악단’ 주연 배우 정진운

〈미스틱스토리 제공〉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정진운은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이

민에게서 북한 말투와 군인들의 움직임 등을 자세하게 교육받으며 훈련했다.

영화는 일부 각색됐지만, 기본적인 이야기 구조

는 실제 북한 이탈주민이 경험한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정진운은 “믿기 힘든 거짓말 같은 이

야기라고 생각했는데, (북한군 출신) 선생님이 제 손을 꽉 잡고 ‘거짓말 같으면 그게 진짜예요’라고 하시던 게 기억에 남는다”고 했다. 북한에서는 거짓말 같은 별을 보는 잊지 못할 추억도 남았다.

정진운은 “영하 35도의 눈밭에 누워 별을 보던 낭만을 잊지 못한다”며 “몽골에서 찍어 온 사진들을 보면 현실감이 없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교순 역의 박시후는 ‘신의 악단’으로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박시후는 “대본의 힘에 끌려 출연하게 됐다”며 “냉철하고 성공을 위해 물

불을 가리지 않던 교순이 단원들을 만

나며 교회돼가는 이야기의 감동에 끌렸다.

정진운은 “영하 35도의 눈밭에 누워 별을 보던 낭만을 잊지 못한다”며 “몽골에서 찍어 온 사진들을 보면 현실감이 없을 정도”라고 표현했다.

교순 역의 박시후는 ‘신의 악단’으로

10년 만에 스크린에 복귀한다.

박시후는 “대본의 힘에 끌려 출연하게 됐다”며 “냉철하고 성공을 위해 물

불을 가리지 않던 교순이 단원들을 만

나며 교회돼가는 이야기의 감동에 끌렸다.

오랜 시간 그리워한 영화 촬영장이지만, 북한 사투리를 쓰며 몽골 설원의 추위를 견디는 건 그 역시 쉽지 않았다.

박시후는 “북한말이 생소해서 너무 힘들었다”며 “일대일 개인 지도를 받고, 녹음해서 현장에서도 들으면서 계속 외웠다”고 했다. 이어 “첫 야외촬영 날, 기막히 있어도 눈물 콧물이 나오고 바로 얼 정도의 추위에 카메라도 얼었다”며 카메라를 녹이는 데에만 시간이 한참 걸렸던 일화도 소개했다.

같은 보위부 군인으로 호흡을 맞춘 정진운에 대한 애정도 드러냈다.

박시후는 “제가 장남 스타일이면 정진운은 막내 스타일이라 ‘케미’(호흡) 가 잘 맞았던 것 같다”며 “성격이 반대여서 오히려 잘 맞았는지 화기애애하고 즐겁게 촬영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척척의 오늘의 운세

음력 11월 10일

천문역원 (062)673-2427



쥐띠: 무언가를 밟고나가 올라서지 않으면 안되는 긍박한 상황이 있다.

36년생 뜻밖의 행운이 나에게 다가오니 행하는 것이 절반 이상을 성취한다. 48년생 안타까운 시선으로 바라보지 말고 그 사람의 장점 만을 극대화하자. 60년생 가벼운 마음으로 길을 나서니 만나는 사람마다 즐거움을 준다. 72년생 무엇을 가지고 못 가지고는 그리 중요한 사안이 아님을 명심할 것. 84년생 정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기꺼운 사람부터 정리하자. 96년생 평정심을 자극하는 무언가를 내치지 않으면 어지기 흐트러진다.



소띠: 출기분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으나 여유가 아직은 없겠다.

37년생 종교적인 믿음이 있는 강한 사람은 길 위에서 서성거리지 않는다. 49년생 많은 사람과 만나고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더욱 유익한 하루다. 61년생 작은 의견대립 때문에 긴장을 상하고 치유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린다. 73년생 내가 처리하는 것과 타인에게 맡기는 게 같은 수 없지는 않겠는가. 85년생 힘으로 처리할 일과 마리로 처리할 일을 제대로 구분해야 편하다. 97년생 사직은 우연이었지만, 지금까지 걸어온 길은 자신이 지킨 것 아니자신을 다독여주어라.



호랑이띠: 가까운 곳으로 움직이고 가능하면 여럿이 함께하는 것이 좋은 날이다.

38년생 일관된 자세를 유지하면 적잖은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좋은 날이다. 50년생 오리조리 피해 가지 말고 당당하게 정면으로 맞서는 모습을 보이자. 62년생 한번 실수는 병가지상사(兵家之常事)라는 말이 있으니 해오던 대로 밀어붙이자. 74년생 자기 관리도 중요하나 아직은 시간적인 여유가 없으니 서둘지 마라. 86년생 상대의 속마음을 헤아리는 일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아니다. 98년생 함께하는 사람에게 많으면 좋은 점도 있으나 분명니쁜 점도 많다.



토끼띠: 근본적인 모순을 발견하더라도 당장 보완하는 것은 아무래도 무리일 듯싶다.

39년생 서늘한 곳에서 오래 머물면 혈관 계통에 문제가 발생할지 모른다. 51년생 음어리진 것을 빨리 풀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접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63년생 손실이 우려되는 일이라면 미련 두루 말고 정리하는 것이 급한 일이다. 75년생 낫이 할 수 있는 일을 헤쳐서 도맡아하고 있으니 심신이 지치는 운세다. 87년생 친구나 친정으로 인한 심리적인 변화가 예상되니 마음을 편하게 생각하자. 99년생 어느 방향으로 길을 지나지금 정지하지 않으면 자꾸만 헛된다.



용띠: 한 가지 시름을 덜고나니 새로운 걱정거리가 눈앞을 가로막는다.

40년생 갈림길에서 많은 생각이 드는 건 당연하지만, 빠른 결단을 내릴 때이다. 52년생 온갖 추측이 난무하지만, 가치관이 분명한 사람은 헛들리지 않는다. 64년생 앞으로 나가지 말고 옆으로 살짝 돌아가는 편이 좋겠다. 76년생 어둠을 밝히는 존재가 되기를 바란다면 시선을 아래쪽으로 두어야. 88년생 기쁜 마음으로 길을 나서면 가는 길이 아주 멀어도 지루하지 않다. 90년생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 상대방에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편이 좋겠다.



뱀띠: 자신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것이 있다면 조력자의 지혜를 빌리자.

41년생 비슷한 것은 많이 있는데 자신이 원하는 것이 없으니 속만 상하다. 53년생 옥심부리다가 모두 놀칠 수 있으니 적당하게 취하는 것이 편하다. 65년생 의심은 또 다른 의심을 부르니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어야 길하다. 77년생 목적의식이 불분명하면 과정에 충실히 못하고 많은 것을 잊는다. 89년생 진짜 인연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필요할 때면 곁에 물려준다. 90년생 근심, 걱정 무거운 짐들은 이제 그만내려놓자. 너무 걱정하지 말라. 다 잘될 것이다.



말띠: 분위기에 젖어 실수하기 쉬우나 적당한 선에서 물러나야 무탈하다.

42년생 소망하는 것을 이루고 싶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멀어진 느낌이다. 54년생 원칙을 지키면서 부드러운 화술로 사람을 대하면 명망이 더한다. 66년생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자. 아침에 일어나서 그날 해야 할 일 중제일 복잡한 것부터 시작하라. 78년생 인정하기 싫은 부분이 있어도 회피하지 말고 받아들이면 회복된다. 80년생 자신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앞서간다고 생각하지 말라. 인생은 조용히 자신의 학단을 가꾸는 일이다. 92년생 이별 뒤 고통의 크기는 가늠할 수 없다.



양띠: 애초에 생각한대로 밀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힘들어지는 날이다.

43년생 사태주인이 잘 살피 후에 움직이면 많은 것을 주면니에 담는 운세다. 55년생 물은 하나인데 꽃도 많고 부르는 곳이 많아서 고단한 날이다. 67년생 가정이 평탄하여지려면 바깥일이 잘 풀려야 모든 것에 잘 풀린다. 79년생 정점에 도달하는 시기는 제각각이니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마라. 91년생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고, 그것이 꼭 잘못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중요한 것은 실수를 받아들이는 태도다. 93년생 과거를 보며 돌아가지 말고 현재를 위해 나아가길 바란다.



원숭이띠: 애초에 계획한 일부터 해야지 중간에 다른 일을 하는 건 곤란하다.

44년생 마음을 하나로 합치면 어려운 일도 쉽게 풀리는 날이다. 56년생 부산하게 움직이지만, 그에 상응한 대가를 얻기 위해 모자란느낌이다. 68년생 변화를 주지 말고 믿음과 갖고 한곳에 정진하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다. 80년생 건강은 한 번 있으면 다시 찾기 힘드니 무리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92년생 자신보다나은 사람들과 의식적으로 가까이 지내는 것이 유익하다. 94년생 추진력이 강하면 일이 성사되기 쉬우나 친구나 친정을 망설임을 금물이다.



닭띠: 경정이 섞여 있다면 무리한 말이나 행동이 수반되니 여려모로 위험하다.

45년생 어눌한 말투라도 자신의 주관이 강하면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는다. 57년생 소망하는 것을 얻을 수 있지만, 득실하지 말고 서로 조금씩 나누자. 69년생 반복되는 풀리지 않는 속제들을 이미 많이 지쳐있을지도 모른다. 경정과 느낌을 표현해보라. 81년생 현실적인 시각을 가지고 전제를 바라보면 시야가 확 풀 수 있다. 93년생 오늘을 내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자신을 위하는 다른 모습이다. 95년생 금하게 움직이지 말고 차분하게 임하면 좋은 소식을 접할 수 있다.



개띠: 기발한 생각으로 주변의 우려를 불식시킬 기회를 잡는 날이다.

46년생 차분하게 마음먹고 기다리면 좋은 소식이 들리니 조바심 내지 마라. 58년생 행복지수가 올라가니 하는 일도 잘 되고 모든 것 이 잘 풀리는 운세다. 70년생 은근힘이 덕목이 될 수 있으니 서두르지 말고 그냥 편히 기다리자. 82년생 운명은 부족한 자신의 틈 사이로 찾아오기도 한다. 94년생 세상의 기준에 맞춰 너무 조급해하지 마라. 지금도 충분히 나아지고 있다. 96년생 원숙하고 정찬을 듣고 싶다면 터 내지 말고 조용하게 마무리하자.



돼지띠: 현실적인 것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좋으나 과하면 체할 수 있다.

35년생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할 수 기억이 빨리 깊어진다. 늘 밝고 긍정적인 마인드가 중요하다. 47년생 무슨 일이 드는 지름길은 없고, 고통이 따르지 않는 일은 없다. 59년생 즐기는 일을 찾고, 자신에게 맞는 일을 찾아보라. 71년생 경정의 변화가 우려되는데 때만 필요 이상으로 움츠릴 필요 없다. 83년생 당연하고 느끼던 일상이 사라져 버릴 때로 소중함을 깨닫는다. 95년생 꿈이 이뤄지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바라고 그 마음을 담아서 행동해보라.

KCTV 광주 방송

KCTV 광주 방송 채널 5번

뉴스제보 FAX) 062-417-5041 www.kctv.co.kr

TV 프로그램

KBS1

6:00 KBS 뉴스광장
7:35 KBS 뉴스광장(광주)
7:50 인간극장

8:25 송년 기획 아침마당
9:30 KBS 뉴스 930
9:45 KBS 뉴스(광주)

10:00 KBS 뉴스특보
10:2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12:00 KBS 뉴스 12
1:00 네트워크 공동기획 문화
1:50 세계는 지금스페셜

2:00 KBS 뉴스
2:10 팔도방사 스페셜
2:25 국가유산순례 드오
2:30 중계방송 국회 인사청문회

4:00 사사건건
5:00 KBS 뉴스 5
5:30 전국을 달린다
5:40 이맘때

6:00 아침방송
7:00 뉴스광장 전남
7:40 우리말 겨루기

8:30 일드라마 마리와 별난
아빠들
9:00 KBS 뉴스 9
9:35 KBS 뉴스(광주)
9:50 KBS 뉴스 9

10:00 가요무대 스페셜
10:55 KBS 뉴스인문 W
11:35 KBS 네트워크 특선 세
상다반사
0:25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11:35 생활의 발견 스페셜
12:00 고장나는
1:00 고장나는
1:30 고장나는
1:45 고장나는
2:00 고장나는
2:30 고장나는
3:00 고장나는
3:30 고장나는
4:00 고장나는
4:30 고장나는
5:00 고장나는
5:30 고장나는
6:00 고장나는
6:30 고장나는
7:00 고장나는
7:30 고장나는
8:00 고장나는
8:30 고장